

무등산 지질공원, 세계적 명소로 거듭난다

유네스코 인증 1주년 맞아
국제 플랫폼 센터 조성
탐방코스 추가 발굴 등 나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동구 증심사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센터 입구에서 열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 기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열 화순 부군수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지질관광사업단장 허민 교수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경과보고에 이어 표지석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탐방코스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킨다.

2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맞아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지질공원과 관련된 명소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에 한 번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는 만큼 재인증을 위해 세계지질공원 국제 플랫폼센터 조성하고 새로운 지질탐방 코스, 주민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플랫폼센터에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25억원, 시비 225억원)을 투입해 ▲지질·문화 복합

전시관 ▲세계지질공원 전자도서관 ▲세계지질공원 교류의 장 ▲지질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복합센터로서, 전 세계 지질공원 운영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동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는 광주호수생

태원 주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다. 아울러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력해 국비 확보와 세계지질공원 홍보, 탐방객 유치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전남 오전 무등산 증심사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표지석을 설치

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열 화순 부군수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지질관광사업단장 허민 교수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경과보고에 이어 표지석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간 상생협력을 통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자원이자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다.

무등산권역은 2018년 4월17일 세계에서 137번째,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무등산권역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시 동구와 북구 일대, 화순군 일부와 담양군 전체로 지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온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인쇄의 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구, 인쇄의 거리 활성화 심포지엄

광주다온 도시재생 방안 모색

광주시 동구가 금동 '인쇄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25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인쇄의 거리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다온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인쇄의 거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 중인 광주시와 동구가 중앙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 마련됐다.

'광주다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추진단장이 '국가 도시재생뉴딜정책 의의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의의와 활성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어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도시재생 전략적 방향성-환경안전 회복탄력성 제고방안'을, 강신겸 전남대 교수가 인쇄

의 거리를 대상으로 '혁신공간 창출과 도시형 인쇄집적지구 재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국무총리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전광석 호남대 교수가 구청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문범수 광주도시재생국장,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가 함께 2005년 전남도청 이전 이후 급속도로 쇠락한 인쇄의 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동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있을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에 인쇄의 거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택 구청장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인쇄의 거리가 선정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광주다음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10곳 확충

광주시 남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곳곳에 급속 충전기 구축 작업에 나선다.

남구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관내 전동보장구 사용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무료 충전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구축·제공하기 위해 올해 지역 10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 배터리 방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다.

남구는 다음 달 초순부터 급속 충전기 설치를 위한 장소 파악 및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위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며, 설치 작업은 오는 5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되는 급속 충전기 제품 사양은 2명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2시간 가량 충전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완충되는 모델이다.

올해 10곳에 급속 충전기 시설이 구축되면 남구에는 총 17곳에서 전동 휠체어 등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급속 충전기 시설이 구축돼 있는 곳은 남구청 민원실을 비롯해 남구 장애인복지관, 남구 장애인협회, 열린케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구 시각 장애인복지관,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대구 2·28 상징 228번 시내버스 5월 18일부터 운행

대구시장 참석 명명식·시승
151번 버스 번호 바꿔 운행

5·18민주화운동 39주기인 5월18일부터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광주에서 운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228번 시내버스 명명식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달빛동맹협력위원회를 통해 광주 5·18과 대구 2·28을 상징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운행 중인 노선 가운데 지

원151번을 228번으로 변경·운영하기로 했다. 버스 외부도 대구 2·28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바꾼다.

하루 10대가 투입돼 4·19 및 5·18 사적지인 화순~주남마을~전남대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5·18민주화운동기록관~대인시장~광주교~4·19기념관~무등야구장~광천터미널 노선을 79회 운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228 시내버스 명명식' 및 시승행사에 앞서 광주시 공직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 달빛동맹'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달빛동맹 강화를 역설했다.

권 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산업구조의 영세성,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와 혁신에 둔감, 서울로만 연결된 도로와 철도, 동서의 단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감정 등 때문"이라며 영·호남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광주 5·18 정신이 대구 2·28 정신과 맞닿아 달빛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버스 운행으로 광주와 대구 시민들이 함께 일군 연대의 힘이 더욱 굳건해지고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내일 광주천 가꾸기 시민 한마당 행사

광주시는 오는 30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앞 광주천 두물머리나루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천 가꾸기 시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를 광주공동체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가 직접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26개 기관이 광주천을 생태공간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광주천 가꾸기 시민한마당' 행사는 참여단체를 52개로 확대해 광주천 가꾸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

회 성공기원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 참여업체 일부는 건강·생활환경·생활체육 분야 등의 정보와 현장체험 공간을 마련해 재능기부를 한다. 광주시는 더불어 2020년 착공 예정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계획을 홍보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범시민 클린 광주 캠페인'으로 확산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